

근로장려금, 올해 평균 110만원 달해



올해 국세청이 안내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를 만에 100만 이상의 가구가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

은 109만6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급한 74만8000원에 비해 46.9%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에 평균 8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원을 안내했다.

올해는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한다. 이로써 올해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

국세청, 이틀만에 100만 가구 신청…전년比 46.9%↑

올해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

“오는 8월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작 예정”

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 를 차지한다.

또한 소득·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지금액이 인상된다. 소득기준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에서 2000만원, 홀별이기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 원, 맞벌이기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산요건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만원, 홀별이기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기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수급자

와 종복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86만3000원으로 지난해 지급한 금액(52만5000원)에 비해 64.4% 늘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성동세무소를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올해는 달라진 내용을 물리 헤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대화를 나누며 “오는 8월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직장인 월평균 용돈 66만원

10년 전보다 20만원 늘었지만 유흥비 비중 줄어

직장인의 하루 용돈은 2만210원으로 한 달 용돈이 평균 66만3000원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바로면접 일비앱 일비풀이 직장인 7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월평균 용돈은 66만3000원으로 10년 전 같은 조사 때 집계된 45만5000원보다 20만8000원, 비율로는 약 46% 증가했다.

설문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용돈지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식비(28%)였고 이어서 교통비(23%), 부식비(17%) 순으로 많았다. 그 외에는 취미 또는 문화생활비(7%), 쇼핑(6%), 유류비·진목·모임(각 5%), 자기계발비(3%) 순으로 나타났다.

용돈조달 방법으로는 ‘급여 중 일부 액을 체크카드에 옮겨서 한도 내 사용’한다는 답변이 40%

로 가장 많이 선택됐고, 뒤이어 ‘신용카드 사용 후 청구’(30%)가 많이 꼽혔다.

10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금액은 늘었지만, 눈에 띄게 줄어든 부분도 있다. 바로 ‘유흥비’ 비율인데, 당시 지출 항목 1위에 28%의 지지로 ‘유흥비’가 꼽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항목인 ‘친목·모임’ 관련 지출비율이 5%에 불과하기 때문. 현재 직장인 지출 비중의 70%가량은 부식비 및 교통비에서 발생했다.

출퇴근 및 1일 1끼 이상의 식사를 외부에서 해결한다는 직장인 리ライフ 스타일의 특성을 고려 한다. 하더라도, 1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꼭 필요한 부분 외의 지출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미세먼지가 카드 소비 살렸다”

승인금액 전년比 3.9%↑

올해 1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로 인한 관련 가전제품 및 물품 구매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7일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1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는 각각 200조8000억원, 49억3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1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작년 대비 한층 심화된 미세먼지로 인한 소비자 외부활동 자체 등 소비 수요 약화 요인 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고조로 관련 가전제품 및 물품 구매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리인을 통한 구매 수요의 큰 폭 증가,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 분야 이용 수요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해 승인실적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상큼한 맛에 당도 2배”…장성 분향찰토마토 막바지 수확

5월 초까지만 수확…일반 완숙토마토보다 당도 2배 이상 높아 인기

상큼하고 아삭한 식감에 높은 당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남 장성 지역의 특산물 ‘분향 찰토마토’가 막바지 수확기에 접어들었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분향 찰토마토’는 장성 남면 분향리에 소재한 토마토 생산단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 토마토는 매년 10월에 정식 해 이듬해 2월부터 5월 초까지 짧은 기간 수확하는 특용작물이다. 여름이 제철인 일반토마토와는 달

리 봄에만 잠깐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크기는 일반토마토보다 작지만 전체적으로 단단해 아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특히 일반 완숙토마토보다 당도가 2배 이상 높은데다 ‘단맛·짠맛·신맛’이 진하게 어우러져 나는 상큼한 향과 맛은 일품으로 평가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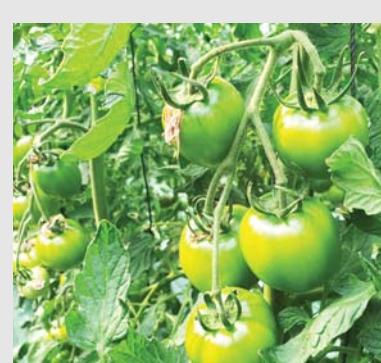
장성 현지 분향 찰토마토 작목반 회원들은 25년 이상의 토마토

재배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그동안 쌓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찰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회원들은 최고 품질의 찰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해 미네랄이 풍부하고 지력이 좋은 황토에서 농사를 짓는다.

작목반은 고품질 찰토마토 생산을 위해 직접 ‘건조농법’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이 농법은 재배 과정 중에 수분을 최대한 억제해 생산량이 줄어



라도 당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게 특점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 기술지원과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토마토 재배단지 면적을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월 수입승용차 1만8219대 신규등록…전년比 29.7%↓

지난달 수입 승용차 1만8219대가 신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9.7% 감소한 수치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4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1만8219대, 1~4월 누적 등록대수는 7만380대를 각각 나타냈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달 6543대의 차량을 판매 1위를 차지했다. BMW는 3226대, 렉서스는

1452대가 각각 판매됐다.

또 불보 916대, 지프 915대, 포드 833대, 토요타 831대, 혼다 735대, 미니 725대, 랜드로버 517대, 포르쉐 336대, 뉴산 307대, 푸조 254대, 인피니티 211대가 각각 판매됐다.

뒤를 이어 캐딜락 123대, 재규어 107대, 마세리티 101대, 시트로엥 45대, 롤스로이스 22대, 벤츠리 15대, 람보르기니 5대가 판매됐다.

4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

스-벤츠 E 300(1761대), 메르세데스-벤츠 E 300 4매틱(1091대), 렉서스 ES 300h(703대) 순이었다.

2000cc 미민이 1만795대(64.7%)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뒤를 이어 2000cc~3000cc 미민이 4576대(25.1%), 3000cc~4000cc 미민이 1446대(7.9%), 4000cc 이상이 219대(1.2%)를 각각 나타냈다. 전기차 등 기타차량은 183대(1.0%)였다.

유럽산 차량이 1만2812대(70.3%)로 가장 인기였다. 일본산은 3536대(19.4%), 미국산은 1871대(10.3%)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가솔린 1만664대(58.5%), 디젤 5018대(27.5%), 하이브리드 2354대(12.9%), 전기 183대(1.0%) 순이었다.

구매유형별로는 개인구매가 1만998대로 60.4%,法人구매가 7221대로 39.6%로 각각 차지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윤대성 부회장은 “4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전월과 비슷했으나 일부 브랜드의 물량부족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승인금액 전년比 3.9%↑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